



山峰頂上の巨岩에 磨崖佛立像이 있는 데 이곳에 新設된 泰鶴寺 李炳熙氏에 依하여 保存되고 있다.

2、磨崖佛立像

大小岩石이 우뚝 우뚝 서 있는 山頂에 特出하게 起立된

地上高 八m 最大幅 九m의 巨岩 南面(正南에서 東으로 三角)에 陽刻한 總高 七·一〇m의 正面直立한 巨像인 바 그 彫法은 上部로 이를수록 튀어나오도록 乳彫되었고 下部는 線刻에 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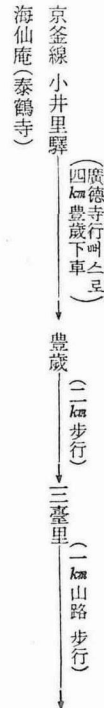
頭部는 素髮이며 頭頂에 肉髻가 큼직하다. 顔容은 兩眉가 半月形으로 두두러지고 眉間이 마에 白毫가 配應되었으며 兩眼은 半開하였으되 眼尾가 위로 올라갔으며 鼻梁이 우뚝하고 口唇은 一字로 다물었는데 大體로 豐滿한 相에 威嚴이 있어 보인다. 兩耳는 길게 어깨까지 이르고 목에는 三道가 層刻되었다. 手印은 左手를 胸前에서 自然스럽게 五指를 모아 손바닥을 위로 向하였으며 右手는 左手 위에 胸部까지 올려 內掌하였다. 通肩衣로 法衣를 두 팔에 걸친 소매가 兩側으로 垂下되고 그 가운데에 衣紋이 總九個의 平行圓弧를 그리며 刻出되었으며 그 밑으로 衣端이 垂直으로 線刻되었을 뿐 그 以下는 未分明한 處理로 끝났다. 佛像 各部의 整齊된 모습과 立體感이 뚜렷한 立像이며 그 手法은 新羅佛像樣式을 繼承한 麗朝의 所作으로 推定된다. 石英質 砂粒이 많이 섞인 粗質岩石인 關係로 若干의 風磨는 있으나 그 保存狀態는 良好하다.

註

① 東國輿地勝覽 卷之十五 天安郡古跡條 「豐歲縣 在郡南二十七里 一名秋川、本百濟 甘買縣 新羅改馴雉、爲大麓郡領縣、高麗初、改今名、顯宗九年 來屬」

② 三臺里寺址의 廢寺年代와 寺名은 未詳하고 「海仙庵」은 父老들의 傳稱에 依한 것이라 함.

〔附記〕



益山郡 德基里 石佛立像

鄭 永 鎬

益山 王宮里五層石塔에서 西쪽으로 건너다 보이는 小丘陵 밑 部落이 八峰面 德基里(신동) 「부처굴」이라 하는 마을인데 이곳 北便의 山麓에 南向하여 石佛 一軀가 洞民들의 信仰으로서 奉安되어 있다. 原位置는 그 위 山봉우리 밑쪽이라 하는 바 現在 그 곳에는 아무런 遺構도 없으며 이 石佛의 移安에 對하여서도 確實히 알 수 없다. 佛像下部가 埋沒된 채 있었으며 全面各部에는 若干씩의 磨損이 있고 彫刻手法은 精巧한 便이 아니다. 素髮의 頭頂에 낮은 肉髻가 表現되었고 兩耳는 짧으며 相好는 各部를 補完하여 原形을 그릇짐은 遺憾된 일이다. 手印은 右手는 臍前에 들었고 左手는 胸前에 들었는데 通肩한 法衣가 左腕에 걸쳐 옆으로 퍼졌으나 曲線의 衣文이 라기 보다는 오히려 直線形으로 보이며 佛像背面에 까지 둘러 있다. 相好나 衣文의 手法 등으로 보아 年代는 高麗下代로 推定된다. 이 石佛에 對하여는 아무런 記錄도 없으며 既往의 調査된 바도 없기에 佛像의 一資料로서 簡單히 紹介한 것이다.

實測值(cm)는

現高 一二·八 肩幅 五·三 全厚 三·四
頭高 三·五 胸幅 三·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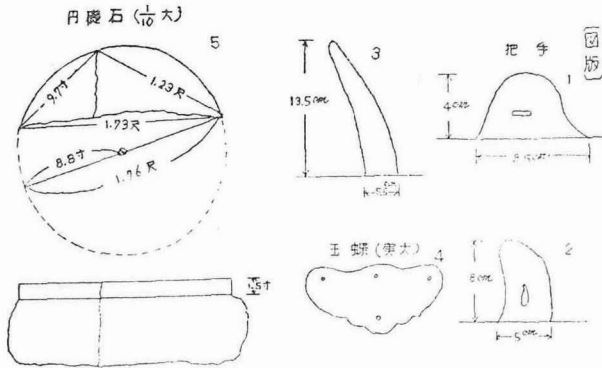
扶餘 扶蘇山 出土의 百濟遺物

洪 思 俊

歐州 通 信 (完)

申 榮 勳

(지난 九月初旬 扶蘇山南麓(매재골泗泚樓下)에 宮女洞宇를 建築하기 爲한 整理作業場 地下 一·二m에서 意外로 百濟時代의 遺物이 出土되었다. 그 遺物들은 全部가 完形이 없으나 百濟當時에도 建物이 있었던 것을 알겠으며 家庭用器具이다.)



- (1) 把手 三種(圖版 1, 2, 3,)
- (2) 鐵釜破片
- (3) 인두? 鐵製 끝이 三角柄이 四角柄
- (4) 鐵火爐片 一
- (5) 鐵釘 一括 散在하였음
- (6) 圓柱礎破片(圖版 5)
- (7) 溫突石 四個 一五cm厚 原石으로 花崗石
- (8) 土器蓋片 數種 重圈文小器片
祭器陶製片
土製瓶項
- (9) 甌器底片 一
- (10) 埴片 一
- (11) 大甕 一 直立埋沒되었으나 破損이 極甚하였고 陶片이 散逸
- (12) 百濟瓦片 多數 蓮花文막새 片 一
- (13) 玉蝶(圖版 4)
- (14) 鐵鍬 一個 完全

以上에서 (6) 圓柱礎石殘片을 復原한 바 直徑이 一·七六尺 東魏尺으로 一·五尺임을 알았으며 또는 (13) 玉蝶은 白玉 一mm 薄板에 蝶形을 造出四處에 細孔이 있어 女子用 製飾具에 頭飾用으로 쓰였었던 것을 알겠다.

博物館倉庫에 保管되어 있는 醫師칼·박博士의 코백손(註·메디칼·센터에서 醫師로 勤務하다가 丁抹에 最近 歸國한 사람으로 歸國時 韓國의 陶磁·木工藝品 等多數를 搬入 同博物館에 寄贈하였으나 未整理로 지금까지 陳列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마타·보이어 博士(Dr. Matha Boyer)와 함께 調査하기로 하고 하루 날을 받아 착수하였다. 스스로의 속셈으로는 좋은 작품이 있으면 골라서 書齋의 備置品으로 使用하고 여유가 있으면 지금의 진열품을 全部 交替하는데 利用하였으면 하는 希望을 가졌었다. 韓國關係의 資料는 特別展示室 바로 뒤편 倉庫에 保管되어 있었다. 커다란 유리창문이 날린 櫥안에는 土器와 瓦片을 넣어 두었고 木工藝品은 그 바깥쪽에 비니루커버를 의운재로 積載하여 두었다. 먼저 土陶品 五十餘點 李朝磁器가 百餘點·其他 三〇餘點 合計 約三百點인데 新羅土器形 그릇과 莫斯瓦는 어떻게 그렇게 모았으랴 싶게 철저히 模造品만 蒐集하였고 高麗磁器도 門外漢의 眼目으로 보아서도 蒐集에 失敗하였구나 하는 程度의 作品들이 大部分이었다. 陶磁專門家의 識見을 빌지 않고는 도무지 模造品 與否를 判斷할 수 없는 몇몇개의 鉢·甌·瓶類가 있고 조금은 깨어져 나가거나 하였지만 그런대로 멋을 지니고 있는 象嵌類의 作品도 한 구석에 있었다. 이 중에서 象嵌梅花文주전자 一點과 陰刻牡丹文甌 二點을 韓國室開館時 玄關 特別 陳列櫥에 展示하였다. 高麗磁器는 約二割程度만이 오리지널 한 것으로 보였다. 李朝磁器는 總數의 八割 以上이 오리지널한 것으로 判斷되는데 대부분 砂鉢類이고 소수의 瓶及 壺類가 混在하고 있다. 砂鉢類는 대부분 靑華白磁의 祭器用器이고 甌도 祭酒瓶이 中心이다. 壺類는 卵黃·灰白色系의 白磁器가 대부분인데 그중에는 참으로 멋지구나 하는 嘆聲이 나올만한 것이 三點 있었다. 이 三點과 靑華白磁壺 一點을 골라 書